

중앙박물관 베제크릭 천불동 벽화·위구르 銘文

국내 최초로 해석 시도

민병훈·우메무라씨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적 보물인 베제크릭 석굴사원의 벽화와 위구르어 명문(銘文)에 대한 해석이 국내 학자와 일본 학자의 공동연구에 의해 국내 최초로 시도됐다.

(미술자료) 55호에 발표된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베제크릭 벽화 위구르銘文 試釋'을 공동 집필한 동서교류사 연구가 민병훈씨(중앙대 강사)와 일본중앙대 우메무라고교수(梅村 恒, 내륙아시아사 전공)는 박물관 4층에 상설전시되어 있는 오타니 컬렉션 중 베제크릭벽화 2점, 지하 유물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같은 지점의 벽화 2점 및 위구르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벽화 단편 3점을 자료로 삼아 고대 불교문화 전파의 중요한 거점 이었던 투르판지역(중국 新疆 위구르자치구) 연구를 위한 위구르어 명문해석을 시도했다. 19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탐험한 일본 오

타니(大谷)탐험대의 방대한 발굴 유물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중국의 여순(旅順)박물관,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 등지에 분장(分藏)돼 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이래 탐험을 진행해 효율적으로 유물을 관리·연구했던 유럽 열강과는 달리 이들 유물에 대한

도록의 출판과 함께 벽화의 보존처리를 위한 한·독 양국의 공동워크숍이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벽화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벽화에 기록된 문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정무한 형편이다. 민병훈씨는 "본 연구는 벽화의 위구르명문 독해를 통해 동서교류사의 현장인 당시 위구

서역 벽화 연구 활성화 계기 동서교류사 밝히는 촉매될듯

연구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현지어로 쓰여진 투르판문서 등 문서류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으나 벽화의 경우 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1989년 박물관이 연구 계기로 벽화를 비롯한 유물이 비로소 상설전시되기에 이르렀고 (중앙아시아미술)이란

트사회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출발점이란 의미를 지닌다"며 "러시아 예르미타주박물관 등 세계각국에 분장되어 있는 벽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씨는 "한국불교미술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서역벽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제크릭 제4호굴상 龕願書 제1주체 공양보살상(유물번호 4062)과 위구르銘文(右). 명문은 "나 바르치 뒤레레 투 키아는 진리에 도달하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베제크릭(Bezeklik)천불동(千佛洞)은 투르판縣城 동북 약 40km에 위치한 석굴사원으로, 하곡(河谷) 서안(西岸)의 굽이진 절벽위에 약 1km에 걸쳐 분포돼 있다. 현재 투르판지구 문화보관소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석굴은 83개이며 그중 벽화가 남아있는 것은 40여개, 8~1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 이 벽화의 총면적은 약 1200평방m에 이르고 있다. 이 석굴사원의 구조상 특징은 절벽을 이용해 굴을 뚫었다는 점과 경주 석굴처럼 대형 석재를 가구(架構)공간을 형성하는 건물의 골격구조(骨格)하여 건축했다는 점에 있다. 김재경 기자

자심반조·회광반조하란 뜻은

문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으로 자심반조·회광반조라는 말이 나온다. 무엇을 일컬을진가요. (〈박영출·서울 서초구 잠원동〉)

답 모든 경계는 다 나의 스승입니다. 물 불 바람 사건 사람 그리고 수상행식이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체를 내 마음의 거울에 조용히 비추보면 그로써 공부하는 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추보려하지 않고 그냥 나의 한 부분 또는 대상으로 보고만 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거울이란 적정하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생각,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적정(寂靜)하면 마치 잔잔하고 맑은 호수면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그림자는 물에 선연히 비취듯 물을 휘젓지 않는 것처럼 되지요. 그렇게 비추보는 게 자심반조요 회광반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으니 내면 세계에다 놓고 돌아가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장우·대전시 중구 중촌동)

쪽으로 얼굴을 돌려 북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북두를 보라, 그래야 움직이는 중에도 걸림이 없고 무엇을 해도 힘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되 본 비가 없고 들되 들은 비가 없이 맑습니다.

가출을 자주하는 학생이 있는데

문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28년간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체벌을 가해보지만 선생을 맞대려고 덤비는 학생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출한 놈을 잡았다 놓았는데 며칠만에 또 가출을 했습니다. 28년간이나 교육일선에서 일해 왔는데도 저 자신 교육시킬 힘이 약해서 그런가 회의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답답해서 하소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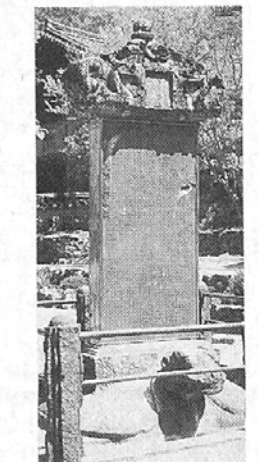
답 님을 우리 안에 몰아 넣어도 또 달아나고 또 달아나듯이 그런 형국이군요. 안타까우시겠지만 선생님처럼 그렇게 애쓰는 게 교육자의 도리이겠지요. 그러나 말로하고 때려서 가르치는 데는 한

지상상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면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사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해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최치원 4산비명' 연구 활발

지관스님·김지건·최영성·이우성교수등

최근 민족문화추진회 이우성 회장(성대 명예교수)이 4산비명(四山碑銘)을 교역(校譯)한 <신라 4산비명>(아세아문화사)을 출간하는 등 4산비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회장의 <신라 4산비명>은 제1부 원문, 제2부 주석, 제3부 역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간본(刊本)·사본(寫本)·탁본 등으로 된 원문을 교감했고, 제2부에서는 주석을 산정(刪定)했으며, 제3부에서는 원문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했다. 4산비명에 대한 최초의 현대적인 역주(譯註)는 87년도에 삼국시대 강사 최영성씨에 의해 이뤄졌다. 그의 <주해(註解) 4산비명>(아세아문화사)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업적을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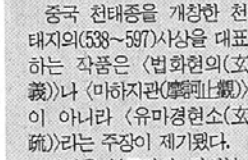


△교정주(校正註)를 붙여 역주해 불교학 및 한국학연구의 문장을 가리킨다.

천태사상 대표작은 '유마경 현소'

이병욱씨 박사논문 '천태지의가 직접 저술'

중국어 천태종을 개창한 천태지의(538~597)사상을 대표하는 작품은 <법화현의(法華現義)>나 <마하지관(摩訶止觀)>이 아니라 <유마경현소(玄疏)>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욱씨(고려대 강사)는 고려대철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통과된 '천태지의의 철학사상 연구'에서 천태지의의 <교관론(敎觀論)>, <별삼삼관(別相三觀)>, <10승관법(十乘觀法)>, <심상론(心相論)>의 4가지 항목을 설정, <법화현의> <마하지관>과 <유마경현소>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것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사상적 발전에서 나타난 것임을 밝혔다. 천태종에서 중요시하는



△이병욱씨

천태3부작인 <법화문구(法華文句)> <법화현의> <마하지관>에는 천태지의의 제자인 관정(灌頂)의 견해가 들어있지만, <유마경현소>는 천태지의가 직접 저술한 것이고 <유마경문소(玄疏)>는 직접 저술한 것에 비견되는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이씨는 <유마경현소>가 언어를 초월한 천태지의사상의 세계를 체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귀주사, 1930년 연명사가 또 용정에 세워졌다. 1931년 만주사변후 연변지구의 불교는 조선불교계와 일본불교계 두 파로 갈라졌고, 일제는 일본불교계를 도와 조선승려들을 친일적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후 조선불교계는 용정의 귀주사를 중심으로 줄곧 우세를 점했다.

연변 조선족 불교의 흐름·역할 조명

'당대중국조선족연구'

중국 조선족불교의 원류와 역사적 역할을 밝힌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변민간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을 집문당이 다시 출간한 책 <당대중국조선족연구>에 실린

으며 1920년대후 조선승려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변 각지에 속속 불교사원이 세워졌다. 1920년 9월에는 연길현 팔도향에 용주사를 세웠고 1920~1923년간에 용정에 본원사 보조사 조동종 등 사원이 세워졌다. 1927년에는 대각사, 1929년

◇기사첨착 '한국 사찰의 주련' 습니다.

"마음의 싯터를 찾는 그대에게 三中스님이 전하는 참인생의 지혜"

백만 독자가 확인한 감동의 책. 어머니가 편지를 받으실 시간이면 죄 많은 불초소생은 저승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절망, 통곡, 그리고 성자가 된 사형수들의 눈물로 얼룩진 秘話. 130인의 사형수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 가난이 죄는 아닐진대 나에겐 죄가 되어 죽습니다 1·2.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 1, 2, 3 권. 지렁이도 기어 극락으로 가는데, 인간은 어찌 지옥으로 가려 하는가? 몸 둘 곳은 있어도 마음 머물 곳은 없어라.